

2016년 12월 7일, 구좌읍 종달리 종달리마을회관, 송정희 조사.  
김춘옥(여, 1939년생, 구좌읍 종달리)

**[제보자]** 난이. 국민학교 사학년 땐디. 옛날 이 칠판닦이를 만들어오라고 선생님이 얘길 헷어, 이젠 칠판닦이를 이젠 양림이하고 나하고 진기하고 서이가 이젠. 강멩이네 집게 저 어디 군선이네 집 올레. 이제 강 멘들안. 이젯 아이들 곧으민 요망정 그 디 잣당 올 거주게. 그디 구신 많이 난덴 허난 이제 아이 막 어멍한테 욕들어지 카부덴 새벽 혼 두시 아니믄 세 시쯤 됫어. 막 오느렌 허난 우리 그 이쪽에 우리 셋아지망 골목에 그 청자네 감낭 잇잖아 그디 아 잇인디양 어떤 조그만흔 할망이 나타난 거라. 게난 우리 서이가 다.

“아이고 할망왔저. 아이고 저 할망이랑 우리 곁이 가게.”

무서우난이 경 헹 이젠이 영 쳐다봐지는 순간에 완전 기신세가 됨 게 한 층은 검고 한 층은 히곡 헹 딱 그 딱 담에 걸청 이렇게나 산.

“아이고 기신세 낫저.”

헹, 서이가 겁난 막 돌아오는디 너무 지치난 겁나난 신이 신도 벗언 둘음도 못 든더라. 힘이 버천 게난 그 앞가름에 나왕 보난이 그때 스물사흘날이라. 스물사흘날 달이 비천게 경현디 진기하고 양림인 오꽃 들어가 불곡 난 학헉헉 막 뛰어 강 막 지천 들어강 낭 아래 강 탁 앗안 학헉 허난 이젠 우리 어머니가 나왕

“아이고 이 미친 년 멧 신디 이 밤이 왓젠.”

허멍 막 난리데쓰는 거라.

“어멍 욕허카부덴 왓젠.”

허멍 야 땀으로 몸 금양이 삼사일 아판 누원. 나. 삼사일 아판 누원. 건디 기신세가이, 바로 그거란 쟁이라. 기신세가 처음엔 작다가 내중엔 커. 그냥 막 팔벌기더라게. 아이고 막.

**[조사자]** 경 헹 어떻 헹 나안마씨?

**[제보자]** 아니 옆길이난 막 뛰어완.

**[조사자]** 아니 아파난 다음에 어떻 헹 나앗수과?

**[제보자]** 아파네. 심방할망 빌러네. 그 세밧디할망 빌렁 뒷세헷어 뒷세헷어. 심방할머니 빌어다가 넋을 디려준 거라. 잡구신 붙엇이카부덴. 경행 낫았어. 나흘로 낫안. 나흘. 아파네.

**[조사자]** 심방할망 이름 뭐마씨?

**[제보자]** 그 할망 죽어불었어. 저 세밧디할망이렌 헌 할망이 잇어.

**[조사자]** 세밧디할망? 여기 종달리.

**[제보자]** 응. 여기 종달리 살당 죽었어.

- 핵심어 : 종달리, 올레, 기신세, 할망, 심방, 학교, 세밧디할망